

정책분석과 동향

기후위기와 건강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채수미·김혜윤|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주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황남희·김은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기후위기와 건강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Adapting to the Health Impacts of the Climate Crisis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혜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소통이 지속되어 왔으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통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소통 요구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일반 대중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부정적 내용보다는 기후 대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미션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주제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건강을 주제로 일반 대중, 정책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모두가 참여하는 전문적인 소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1 들어가며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극단적 기상현상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기후 관련 행동을 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Weber

et al., 2023; Limaye, 2021; Reismann et al., 2021). 또한 지식이 많고 우려를 많이 할수록 건강 증진을 위한 행동을 더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Reismann et al., 2021). 따라서 기후변화와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식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요인들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Semanza et al., 2008).

그러나 여전히 기후변화와 그것의 건강 피해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건강 적응을 위한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실시된 일반인 대상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온열질환의 관련성은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음에도 대중의 인식은 65.6%에 불과했다(채수미, 윤강재 외, 2023). 주목할 점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역시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Albrecht et al., 2023; Reismann et al., 2021).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의 소통 요구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2022년 실시된 일반인 대상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0.3%에 불과했다(황주연 외, 2023). 질병관리청(기후변화 건강위해 정보), 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 포털) 등 유관 부처에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49.2%). 또한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9.1%에 이르렀다(채수미, 윤강재 외, 2023).

지금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인식 조사에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대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해 왔기 때문에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와 정책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인식 아래 이 글에서는 대중이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 얼마나 정보를 탐색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내 커뮤니케이션 정책 동향

가.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위험은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되고, 위험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면서 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분야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Dominic et al., 2020).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홍수, 산불, 폭염 및 가뭄과 같은 구조와 담론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및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한편 건강 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보건과학의 기술과 지식을 홍보, 대중화, 옹호하며 보건과학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 밖에 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대중매체로 소통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환경 문제를 다루는 소통 방식인 환경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존재한다(Wu et al., 2022).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위험과 변화를

사회 각계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 행동 유도, 정책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매체를 활용하는 사회적 소통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비해 역사가 짧고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커뮤니케이션 분야 중 건강, 환경, 위험, 과학, 정치 등의 전문성과 정보를 포괄하며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Wu et al., 2022).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기후위기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으로, 기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촉진하는 채널이라 할 수 있다(채수미 외, 2024).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축적되어 왔다.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이 근거들을 토대로 개인의 건강 관련 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기후 재난 등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한 공중보건을 개선하며, 적응과 완화 전략 촉진을 통해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인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Peters et al., 2022).

나. 국내 기후 커뮤니케이션 정책 동향

1) 보건의료 분야 정책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4년 설치된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에서는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보건당국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므로 이 계획에는 기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정보 플랫폼 구축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안대식 외, 2024). 이 밖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건강 영향과 그에 따른 민감 집단의 피해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폭염,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건강 정보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다.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등 민감 계층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 카드뉴스, 대국민 포스터, 리플릿, 영상, 웹툰 등이 제작되어 있다(질병관리청, n.d.a.).¹⁾ 미세먼지와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대중을 위한 자료로는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천식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포스터, 대중이 궁금

1) 질병관리청. (n.d.a.). 폭염.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205050200>

해하는 100문 100답 책자가 제작되어 있다. 이 밖에 의료인을 위한 진료 길잡이, 다수의 미세먼지 근거 보고서 등이 공개되어 있다(질병관리청, n.d.b.).²⁾

이처럼 질병관리청의 커뮤니케이션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된 콘텐츠를 유관 부처,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4). 그러나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연계한 건강 적응 사업 전달 체계가 명확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 관계자, 대중의 접근성이나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질환 중심의 정보로 집중되어 있어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영향에 대한 콘텐츠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전담 부처로 대국민 소통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왔기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환경 분야 정책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에는 앞서 언급한 질병관리청의 사업,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8곳)가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정보를 확산하고, 교육·홍보·체험활동을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 15곳의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콘서트, 환경보건 이동학교 등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환경부, 2023). 다만 환경보건센터에서는 다양한 환경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을 중심으로 업무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한국환경연구원 산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를 설립하여 적응 연구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부터 전문 정보,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 n.d.).³⁾ 이 밖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기후위기 적응 사례, 실천 요령, 활동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n.d.).⁴⁾

적응 대책의 4대 정책 중 하나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 적응 추진’으로, 이를 위해 환경부는 모든 적응 주체가 동참하는 적응 사회 실현을 위해

2) 질병관리청. (n.d.b.). 미세먼지.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205070300>

3)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 (n.d.).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 누리집. <https://kacc.kei.re.kr/portal/introduce/introduce.do>

4)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n.d.).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 <https://kacc.kei.re.kr/home/>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진척을 점검하며, 산업계·학계·국민 등 다양한 적응 주체와 소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환경부, 2023). 이와 같은 환경부의 커뮤니케이션은 전 부문의 기후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적응도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관계 부처, 지자체, 국민 등 다양한 대상과 여러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요구도

채수미 외(2024)의 연구에서는 2024년 9월 전국 만 19~6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이 조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경험은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보 탐색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였다. 정보 탐색 경험에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얼마나 자주 찾아보았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정보원은 1) 신문, 뉴스, 2) 시사 프로그램, 교육방송, 3) 정부·공공기관·지자체, 4) 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5) 개인·민간 운영 소셜미디어, 6) 보고서·논문 등 전문 자료, 7) 에세이, 칼럼, 과학서적 등 일반 도서, 8) 기타로 구성하였으며, Lehrer 외(2023), 채수미, 김혜윤 외(2023)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반영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소통 경험은 1) 기후변화 주제의 워크숍·세미나 참여, 2) 기후 보호를 위한 생활습관 변화, 3) 친구 또는 지인의 기후 문제 대응 독려, 4) 온라인 참여, 5) 환경단체 활동 또는 기부, 6) 기후변화를 고려한 투표, 7) 유권자의 기후변화 고려 독려, 8) 청원 참여, 9) 시위·파업 참여, 10) 정치적 시위에서 불법일 수 있는 행동, 11) 가족, 친구, 동료와 기후변화에 대해 소통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통 경험은 Lehrer 외(2023), Maran & Begotti(2021)에서 활용한 문항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변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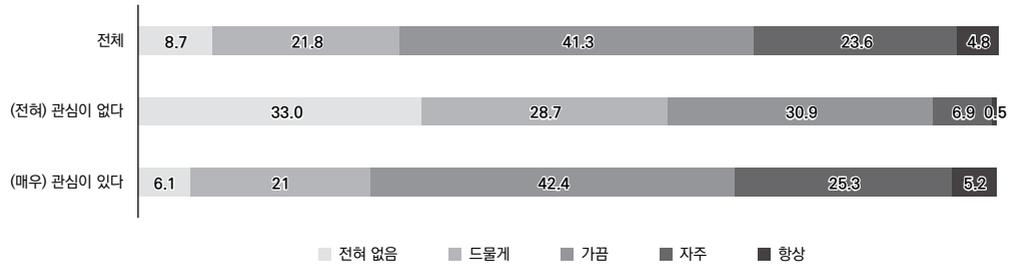
가. 기후변화 관련 커뮤니케이션 경험

1)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보 탐색

국내에서는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대중의 소통 경험과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정보 탐색 빈도에 드물게, 가끔, 자주, 항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고 하였다(그림 1). 이러한 정보는 신문·뉴스(94.0%) 또는 시사 프로그램·교육 방송(92.0%)과 같이 공인된 매체를 통해 습득하고 있었고, 일반 도서(70.8%)나 보고서, 논문과 같은 전문 자료(67.2%)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조사의 대상자가 일반 대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그림 1]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보 탐색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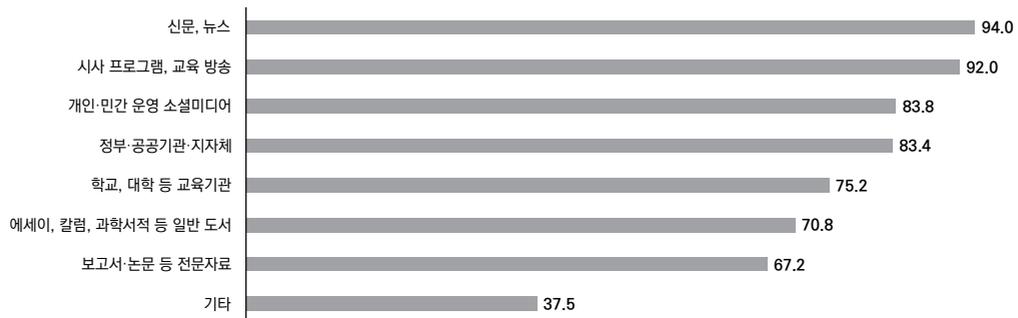


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 정보 탐색 빈도가 더 증가함.

출처: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채수미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2.

[그림 2]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로(정보원)

(단위: %)



주: 기후변화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없는 경우(n=173) 응답에서 제외됨.

출처: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채수미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pp. 131-132의 내용을 그래프로 제시함.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일반 대중의 전반적인 정보 탐색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림 2).

2) 기후변화 관련 소통 경험

기후변화 관련 소통 경험에서는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거나(66.1%),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들

과 소통하고(52.7%), 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56.5%)가 많았다. 또한 정치적 참여와 권리 행사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54.9%)도 절반 이상이었다. 즉 본인 또는 주변과 같이 직접적인 영향력이 닿는 경우 기후행동 경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에 반해 혼자 할 수 있는 행동인 강연, 세

[그림 3] 기후변화 관련 소통 경험

(단위: %)



주: '가끔', '자주', '항상'으로 응답한 비율.

출처: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채수미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33-134의 내용을 그래프로 제시함.

미나, 워크숍에 참석한다는 경우(26.0%)가 가장 적었는데, 이것은 참석할 수 있는 강연 등이 적기 때문인지, 이러한 소통을 선호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그림 3).

나. 기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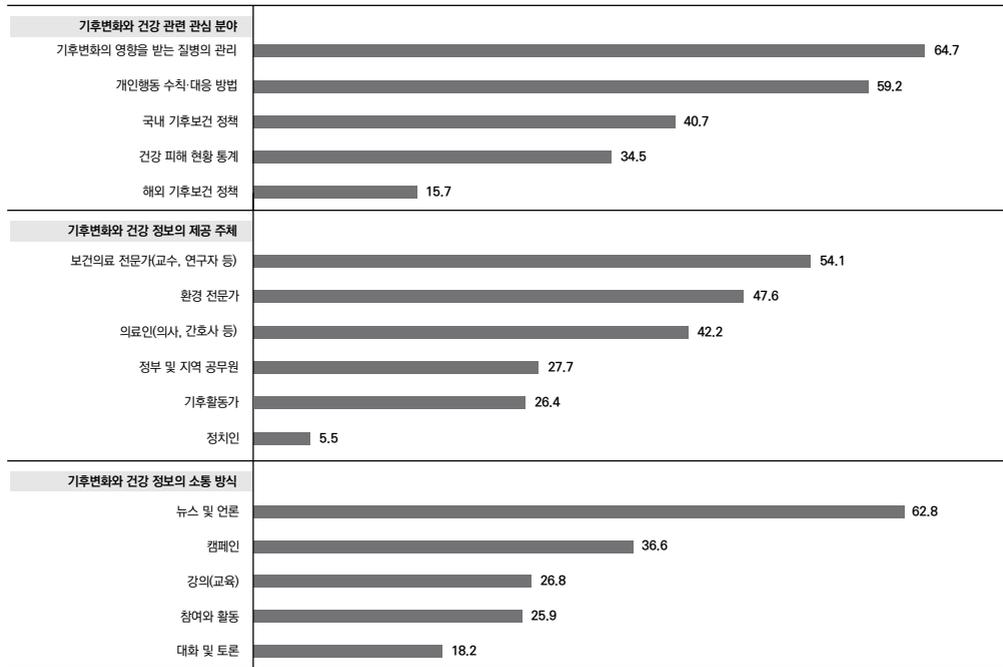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87.4%를 대상으로 기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관리(64.7%)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개인행동 수칙/대응 방법(59.2%)이 그다음을 이었다. 국내외 기후보건 정책, 현황 통계 등과 같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기후변화 건강 적응 업무를 주관하는 질병관리청은 온열 및 한랭 질환 감시 체계를 통해 집계

되는 건강 피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기후보건 영향평가를 통해 포괄적 건강 영향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건강 적응 정책의 필수적 정보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자신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국가가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대중은 국가 및 지역 단위의 과학적 근거보다 개인이 해야 하는 건강 보호 방안에 대한 정보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그림 4).

대중은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로 보건의로 전문가(교수, 연구자 등)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54.1%). 이 밖에 환경 전문가(47.6%), 의료인(42.2%)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정보 접근을 선호하였다. 국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그림 4] 기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도

(단위: %)



출처: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채수미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38-139.

이 필요해 보인다. 기후변화와 건강 정보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뉴스 및 언론(62.8%)이 가장 큰 선호도를 보였다. 적극적인 형태의 소통인 참여와 활동(25.9%), 대화 및 토론(18.2%)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4).

4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 건강 적응을 위한 소통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채수미, 윤강재 외, 2023; 황주연 외, 2023)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소통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와 정책은 주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하

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질병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개인행동 수칙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 기후 변화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적응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겠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건강 관련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의 이점을 강조하였는데, 대안을 포함한 메시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Kotcher et al., 2021; Maibach et al., 2010). 즉 기후 변화가 우리 삶의 위기라는 경고에 그치기보다 구체적 미션과 행동 지침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 변화와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산시켜야 한다. 기후 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나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 등 부정적 내용보다 기후 대응을 통해 얻게 되는 건강, 경제적 이점 등 긍정적인 메시지가 효율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Limaye & Toff, 2023; Kreslake et al., 2016). 친환경적 행동 변화의 맥락에서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재고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 노출이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고, 기후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정보의 노출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좋은 사례를 미디어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채수미, 김혜윤 외, 2023; Maran & Begotti, 2021).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한 방안을 종합하면 기후 변화와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방안 중심으로 전달하여 긍정적 감정을 고취시키되 이에 앞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대중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정 주제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Rudolph et al., 2018). 조사 결과 보건의료인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일반 대중이 신뢰하는 정보원임이 확인되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소통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지점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소통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에 따라 적절한 맥락과 이해를 기반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인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다(채수미 외, 2024). 더

나아가 기후에 대해 어떤 인식과 감정을 갖는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Hickman, 2021). 일반 국민의 전반적인 리터러시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평이한 언어, 언어보다는 그림을 사용하는 방안, 그리고 미디어 세대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인다.

5 나가며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그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축적되었다. 이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은 공중보건 분야에서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근거들을 토대로 개인의 인식과 건강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기후 재난과 같은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한 공중보건 이슈를 공론화하며, 적응과 완화 전략을 촉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간 기후변화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소통이 이루어져 왔으나, 보건정책에서 기후변화와 건강을 주제로 한 소통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또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통의 부족으로 나타난 특징과 소통의 요구를 고려할 때 일시적·산발적인 소통이 아니라

전문적인 소통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수요에 기반하여 접근해야 한다. 올바른 인식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방안에 중점을 두었으나, 정책결정자, 보건의로 전문가 등 대상의 범주와 논의가 확장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일반 대중이 신뢰하는 정보원인 보건의로 전문가, 국가 및 지자체 단위에서 소통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정책결정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 적응 추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n.d.).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 <https://kaccc.kei.re.kr/home/>
-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 (n.d.).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 누리집. <https://kaccc.kei.re.kr/portal/introduce/introduce.do>
- 안대식, 안윤진, 정은지, 오진희. (2024).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 **주간 건강과 질병**, 17(35), pp.1465-1517.
- 질병관리청. (2024). **2023 질병관리청 백서**.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 (n.d.a.). **폭염**.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205050200>
- 질병관리청. (n.d.b.). **미세먼지**.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205070300>

- 채수미, 김혜윤, 이수빈, 신지영, 백주하, 김태현, 전진아. (2023).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수미, 윤강재, 고든솔, 백주하, 신지영, 정휘철, 최슬기, 우경숙, 김혜윤, 옹열여, 한상희, 강혜리. (2023).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체계 및 발전방안 연구**.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수미, 김혜윤, 정수경, 우경숙. (2024).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환경부. (2023).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2025)**.
- 황주연, 김종희, 권호장, 황승식, 김효은, 박성우, 이영주, 안윤진. (2023). 2022년 기후보건 대국민 인식 조사. **주간 건강과 질병**, 16(21), 635-651.
- Albrecht, L., Reismann, L., Leitzmann, M., Bernardi, C., von Sommoggy, J., Weber, A., & Jochem, C. (2023). Climate-specific health literacy in health professionals: an exploratory study. *Frontiers in Medicine*, 10, 1-8. <https://doi.org/10.3389/fmed.2023.1236319>
- Campbell, E., Uppalapati, S. S., Kotcher, J., & Maibach, E. (2023). Communication research to improve engagement with 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A review. *Front Public Health*, 10(1086858). <https://doi.org/10.3389/fpubh.2022.1086858>
- Dominic, B. W., McComas, K., & Besley, J. (2020). The evolving field of risk communication. *Risk Analysis*, 40(S1), 2240-2262.
- Hickman, C. (2021). *Mental Health and Climate Communication: Guidance on effective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with children*. GLOBE.
- Kotcher, J., Maibach, E., Miller, J., Campbell, E., Algodmani, L., Maiero, M., & Wyns, A. (2021). Views of health professionals on climate change and health: A multinational survey study. *Lancet Planet Health*, 5(5), e316-e323. [https://doi.org/10.1016/S2542-5196\(21\)00053-X](https://doi.org/10.1016/S2542-5196(21)00053-X)
- Kreslake, J. M., Price, K. M., & Sarfaty, M. (2016). Developing effective communication materials on the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 for vulnerable groups: A mixed methods study. *BMC Public Health*, 16(946), 1-15. <https://doi.org/10.1186/s12889-016-3546-3>
- Lehrer, L., Hellmann, L., Temme, H., Otten, L., Hübenthal, J., Geiger, M., Jenny, M. A., & Betsch, C. (2023). Communicating climate change and health to specific target groups. *Journal of health monitoring*, 8(S6), 36-56. doi:10.25646/11773
- Limaye, V. S. (2021). Making the climate crisis personal through a focus on human health. *Clim Change*, 166(43), 1-11. <https://doi.org/10.1007/s10584-021-03107-y>
- Limaye, V. S., & Toff, B. (2023). Evaluating responses to health-related messages about the financial costs of climate change. *J Clim Change Health*, 10(100218), 1-9.
- Maibach, E. W., Nisbet, M., Baldwin, P., Akerlof, K., & Diao, G. (2010). Reframing climate

- change as a public health issue: An exploratory study of public reactions. *BMC Public Health*, 10(1), 299.
- Maran, D. A., & Begotti, T. (2021). Media exposure to climate change, anxiety, and efficacy beliefs in a sample of Italian university students.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8(9358), 1–11. <https://doi.org/10.3390/ijerph18179358>
- Peters, E., Boyd, P., Cameron, L. D., Contractor, N., Diefenbach, M. A., Fleszar-Pavlovic, & Stephens, K. K. (2022).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for communicat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health. *Translational behavioral medicine*, 12(4), 543–553.
- Reismann, L., Weber, A., Leitzmann, M., & Jochem, C. (2021). Climate-specific health literacy and medical advice: The potential for health co-benefits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n exploratory study. *The journal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4(100072), 1–8. <https://doi.org/10.1016/j.joclim.2021.100072>
- Rudolph, L., Harrison, C., Buckley, L., & North, S. (2018). *Climate change, health, and equity: A guide for local health departments*. Oakland, CA and Washington D.C.,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Public Health Institute, Center for Climate Change & Health.
- Semenza, J. C., Hall, D. E., Wilson, D. J., Bontempo, B. D., Sailor, D. J., & George, L. A. (2008). Public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voluntary mitigation and barriers to behavior change. *Behav Public Commun Issues*, 35(5), 479–87.
- Weber, A., Kroiss, K., Reismann, L., Jansen, P., Hirschfelder, G., Sedlmeier, A. M., Stein, M. J., Bohmann, P., Leitzmann, M. F., & Jochem, C. (2023). Health-promoting and sustainable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in Germany: A cross-sectional study.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5238), 1–14. <https://doi.org/10.3390/ijerph20075238>.
- Wu, M., Long, R., Yang, S., Wang, X., & Chen, H. (2022). Evolution of the knowledge mapping of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research: Basic status, research hotspots, and pro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8), 11305.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Adapting to the Health Impacts of the Climate Crisis

Chae, Sumi

Kim, Hyeyu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order to help the general public to foster their ability to adapt to the health impacts of the climate crisis, various forms of public communications have been conducted, though not to such an extent as to be considered sufficient. This article examines where such communications fall short and discusses the communication practices and strategies people wish to see more of. To influence public perceptions and behaviors, messages should emphasize the benefits of acting against climate change and present well-defined objectives, rather than focusing on negative aspects such as the costs involved. These messages are more effective when delivered by trusted public figures who can consistently raise awareness of key issues. Moreover, communications about climate change and its health impacts need a professional framework that unites diverse stakeholders, including the general public, policymakers, and healthcare experts, and strategies to align support with actual needs over the medium to long term.